

파푸아뉴기니 농업장관, 새만금개발공사 방문

업무협약 체결 · 새만금 사업 현장 시찰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달 31일 파푸아뉴기니 오부라 위네 나라 지방정부(Obura-Wonemara District in Papua New Guinea/Minister for Agriculture & Member for Obura Wonemara Hon John Bito) 관계자를 맞이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만금과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사 나경균 사장과 파푸아뉴기니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지역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양 기관 주요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그 외 필요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양해각서 체결식 이후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건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 등 사업 현장을 찾아 생동감있는 설명을 들으며 새만

금 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파푸아뉴기니 혼 존 보이토 농업장관은 "새만금에 건설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계획과 대규모 에너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탄했다"며, "향후 파푸아뉴기니에 돌아가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고민해보겠다"고 새만금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과 파푸아뉴기니간에 상생의 초석이 마련되었길 바란다"며, "향후 새만금 지역에 설립될 세계농업대학에서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글로벌 농생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 서쪽의 도서국가로 한국과는 1976년 수교 이후 경제, 개발협력,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달 31일 파푸아뉴기니 오부라 위네 나라 지방정부 관계자를 맞이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만금과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달 30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 조직 발전 중요 기반'

농어촌공 · aT 등, '사랑의 김치 나누기' 활동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달 30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미래 동량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년봉사단을 꾸려 추진된 이번 활동은 농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배추김치(1,200kg)와 깍두기(800kg) 등 계절 김치 2,000kg을 직접 담가 포장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활동 이후에도 각 기관의 조직문화와 업무 특성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활동은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조직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와 조직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경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지난 달 29일 원주군 일원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하 '지주청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과 소속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장기 근속 유도 및 네트워킹 목적으로 한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내용은 참여 청년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문화공연(마술)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을 진행해 참여 청년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익산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은 "실무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고, 타 기업 청년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워크숍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글로벌 보안 경쟁력 입증으로 보안 경쟁력 강화해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001 신규 취득 및 ISMS 인증 갱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금융업계 보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ISO27001은 국제 표준 화기구 ISOX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서 전북은행은 조직, 인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의 4개 영역인 총 93개 항목

목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초 인증 취득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도 2018년 11월 최초 획득 이후 6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및 보호 대책 요구사항 64개 등 총 8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만호 기자

이번 인증 취득은 데이터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에 대한 전북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며, 국내의 금융 분야에서 정보보호 신뢰도와 투명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ISO27001 및 ISMS 정보보안 인증은 고객 정보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당행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며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달 31일, 완산경찰서, 서신119안전센터, 완산 소방서 백화점 비상 대기조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 민관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화재 · 시민 안전 민관 합동 훈련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규)은 지난 달 31일, 완산경찰서, 서신119안전센터, 완산 소방서, 백화점 비상 대기조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화재 및 대테러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화재 및 의심폭발물이 발견된 상황을 가상사나리 설정해, 화재 및 가상폭발물 신고를 시작으로 백화점 비상대기

조 초기 대응, 서신지구대 의심폭발물 확인과 완산소방서 화재진압 및 환자 구조 등의 순으로 상황 별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와 소방용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경찰차 등의 차량과 장비가 동원되었다. 이어 롯데백화점 점장 인사말과 더불어 완산경찰서 현장대응단장의 강평을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